

“달라이라마제, 흔들릴 우려 거의 없다”

오캇상 달라이 라마 복미 대변인, 후계자 문제 언급

“달라이라마 열반 후 중국 정부가 후계자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참여한다 해도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달라이라마 복미지역 대변인 케이도르 오캇상이 ‘미국공영방송국’과 인터뷰서 달라이라마 후계자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달라이라마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적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그렇지만 달라이라마의 실질적 나이는 이제 중국과 티베트인들 모두가 걱정해야 할 시기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달라이라마는 후계자 정립에 대해 3가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캇상 대변인은 “하나는 티베트의 오랜 전통적인 후계자 선정 방법으로 후임을 고르는 것이다. 달라이라마로 환생했다고 추정되는 어린 아이를 지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티베트 승려 의회에서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법은 달라이라마가 환생 대신 정신적 발원(emanation)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달라이라마는 살아있을 때 후계자를 지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달라이라마의 제안은

시행할 경우, 티베트 망명정부 및 달라이라마의 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려가 남는다. 오캇상 대변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티베트인으로서 15대 달라이라마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캇상 대변인은 후계자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후임 달라이라마를 세우려하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임직하면 2인자인 판첸 라마가 달라이라마가 환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년을 찾아내 후임 달라이라마로 키워야 하는데, 지금의 11대 판첸 라마는 중국 정부가 세운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라니하게도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조종하거나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축수를 뺏으면서도, 15대 달라이라마 후계자 문제에 대해 우리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지역에서 달라이라마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케이도르 오캇상이 미국공영방송국과 인터뷰서 달라이라마 후계자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출처=미국공영방송

후계자 관련 달라이라마 제안 해석 오캇상 “15대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 중국 정부 개입 우려 언급하기도

이와 같이 후계자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달라이라마는 지난해 “(중국에 종속된) 우매한 달라이라마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 “이런 슬픈 상황을 생각하면 전통을 끝내는 게 낫다”고 말해 ‘더 이상 유훈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혈통은 환생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

이라며 “달라이라마의 환생, 그의 혈통 단절과 지속을 결정하는 권한은 중국 중앙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롬상 상기가 총리는 “마치 쿠바의 피델 카스트가 ‘내가 차기 교황을 정할 테니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방글라데시 불교 승려 또 ‘난자 피살’ 당해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세력 범행 추정 테러 잇달아

방글라데시 노승(老僧)이 한 사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슬람이 국교인 방글라데시에선 최근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 및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영국 언론 ‘Mirror’는 5월 14일 “불교 승려 몽소우 우 차크(Mongsowe U Chak·75)이 혼자 거주하던 한 사원 내에서 피살됐다”며 “시신은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한 목격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어떤 이슬람 단체에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자인하지 않았지만,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불자·힌두교인·개신교인 등에 대한 난자 테러 일부가 ISIS(Islamic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급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서 불교·힌두교·개신교 등에 대한 살해 테러가 급증하며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0월 5일 이슬람 세력에 의해 피살당한 방글라데시 마웅 슈 우(Maung Shue U) 스님을 추모하는 미얀마 승려들. 사진출처=nydailynews

state of Iraq and syria) 소행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몽소우 스님이 피살된 사원이 위치한 Naikkhanchhari 지역은 다카 지역으로부터 21마일 떨어져있기 때문에 살해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최근 무신론자들에 대해 무차별한 살해 및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달반(Bandarban) 지역경찰장은 ‘Guardian’과 ‘Jashim Uddin’과 인터뷰

서 “우리는 사원 내에서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고, 4-5명이 사원에 침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글라데시 세속 정부는 ISIS 또는 알카에다 등 무장 세력이 국내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며, “방글라데시 내부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의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글라데시 내 테러위험은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트 에 이슬라미’의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73) 대표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며,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니자미 지지 세력과 정부 간 유혈사태 등 최후의 사태도 우려하며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니자미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독립을 반대하며 친 파키스탄 민병대와 함께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자에 대한 서양인의 오해 5가지

허핑턴포스트, 채식주의 등 잘못된 선입견 소개

미국에서 불자로 살아가게 되면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다. 서양 사람들은 불교 뿐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전반적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선입견도 함께 갖고 불자들에게 접근한다.

‘허핑턴포스트’는 4월 29일(현지시간) 서양인들이 갖는 불교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소개했다.

불자는 채식주의 한다
일부 대승불교 국가 스님 및 신도들이 철저히 지킬 뿐 일반적인 불자들은 무조건적인 채식주의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처님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다.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없었다. 부처님은 결식(乞食)으로 식사를 해결했으며, 제자들에게는 식사의 선택을 근본적으로 금했다. 초기경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제공해준 음식은 청정하다”고 말했다. 남방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재가신자에게 육식을 금해야 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살아있는 생명을 직접 죽이거나 다른 이에게 죽이라고 시켜서 먹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불자로 살아가게 되면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다. 서양 사람들은 불교 뿐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전반적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선입견도 함께 갖고 불자들에게 접근한다.

‘허핑턴포스트’는 4월 29일(현지시간) 서양인들이 갖는 불교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소개했다.

불교는 전통에 따른 특별한 신명체계를 갖고 있다
많은 서양인들은 불교적 신념과 가르침이 불교만의 독특한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다. 불교 교리를 배우다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보편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과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과학자들마저 놀라게 받아들인다.

천국(극락세계)을 믿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불자들이 천국에 대해 믿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불자들이 믿는 환생이라는 개념은 “죽으면 다른 누군가로 다시 태어난다”고 정의내릴 단순한 것이 아닐 뿐이다.

불교에서는 영속성이 없는 극락세계를 포함해 매우 복잡한 사후 세계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천국(극락세계)에 대한 언급은 부처님 당시 설법에서도 나온다.

만약 손님이 불자를 집에 초대할 경우 사전에 채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획일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대승불교와 금강승불교에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에 익숙하다.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팔리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르마(Dharma), 반야

만약 손님이 불자를 집에 초대할 경우 사전에 채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자들은 물질만능주의자가 없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해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라고 가르쳤다. 이에 당시 제자들은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승려들이 많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영적 해방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보형 객원기자



석가탄신일 축하하는 베트남 스님들. 사월초파일을 맞아 전 세계에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5월 10일 베트남 남딘에서는 베트남불교회(the Buddhist Church of Vietnam)의 봉축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개회를 알리는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법에 따라 우리들은 극단주의를 배척하고, 인류평화와 행복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아름 기자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 선사님으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든 해인사 응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든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3개국어판
이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이 영어, 중국어를 더하여서 3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새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역사 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 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1편 처방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맑은 체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몸 나고 벗어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중의술 www.mszy.co.kr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 ② 의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은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운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염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 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천운사)